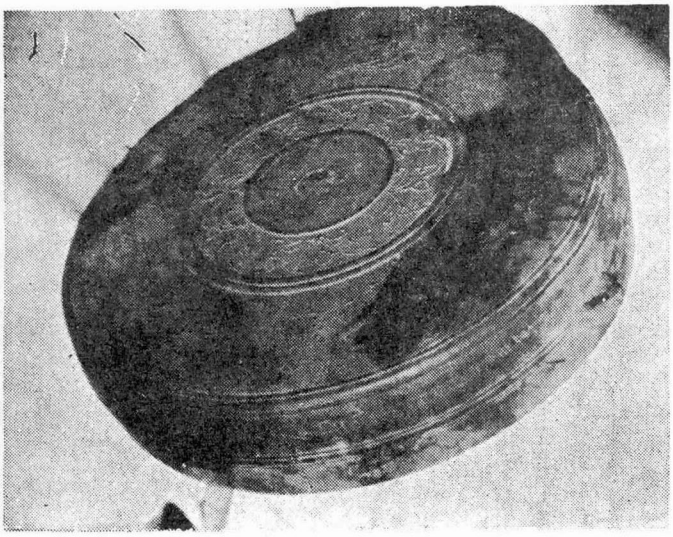
在銘高麗「鈑子」의 新例

鄭 永 鎬



梁山郡 下北面 龍淵里 千聖山 內院寺①에서 所藏中인 高麗時代의 在銘禁口를 調査한 바 있기에 簡單히 紹介하려 한다。

昨年(一九六一年)八月에 同寺의 屬庵인 益聖庵②에서 水道工事를 하다가 約 二—三m되는 地下에서 作業人들에 依하여 出土되었다는데 傳聞한 바에 依하면 出土當時 禁口內部에는 木炭이 滿藏되어 있었다고 한다。

銅製인 바 地下에 埋藏되어 있었으므로 全面에 靑綠銹가 두껍게 덮혀있다。

形態는 韓國 禁口의 一般型으로서 鼓面은 片面뿐이다。

裏面에는 幅 三cm의 短緣이 斜面으로 內付되었는데 彫飾은 없고 口緣에는 圓條가 突起되었으며 中空일 뿐이다。

側面(幅 一一cm)에는 中央에 太細三條線 一條가 周回하여 左右面을 區分하였고 圓孔(四·五cm×二cm)의 兩身이 上部에 달려 있는데 兩耳를 連한 弧는 約 三分之一에 該當된다。表面은 徑 三九·五cm로서 中央에 無紋撞座(徑 一〇·八cm)가 있고 그 外面은 太二條線으로 兩分하였으며 그 內圈(徑 一九cm)에는 六朶의 寶相花紋이 돌려 있고 外圈에는 雲紋을 四處에 配置하였는데 彫飾은 陽刻으로 모두 淺刻되었다。

記銘은 側面에만 있는데 右耳下端으로부터 一行으로 三〇字가 陰刻되어 있는 바 楷書로서 字劃은 端正하나 深刻되어 있지는 않다。그 全文은 다음과 같이 判讀되었다。

「大安七年辛未五月日棟梁僧貞妙次知造納金仁寺鈑子一口重二十斤印」

以上 銘文에서 「大安七年辛未」는 遼, 道宗七年으로 高麗 第十三代 宣宗八年(一〇九一年)에 該當되므로 距今 八七一年前의 作品인 것이다。造納된 寺院과 棟梁僧의 이름이 보이고 있으며 品名으로 「◉鈑子」라고 한 것은 또한 稀貴한 用例라고 할 것이다。

註

① 釜山에서 빠—쓰로 通度寺가는 途中 龍淵里에서 下車하여 約 八km 千聖山下로 들어감

② 內院寺에서 約 二km, 部落으로 내려 오는 길가에 山神閣과 益聖庵이 있는 바 그 一帶는 廢寺址이며 瓦片이 散在하였고 石築도 一部 보인다。

奉化 鳳城里 石佛

秦 弘 燮

安東을 中心한 隣近地方에 數많은 佛敎遺蹟이 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注目되어 오던 바이다。그 中 奉化郡內에도 春陽面 西[illegible]里 廢寺址의 三層石塔 二基를 비롯하여 鳳城面 乃城面 等地에 塔像들이 傳하고 있다。

여기 紹介하는 것은 鳳城面 鳳城里 제장골 俗稱미륵고개 中턱에 있는 石佛로서 이 곳은 面事務所 所在地에서 約 五里가량 떨어진 곳이며 面事